

-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중국과 원만한 무역협상 기대, 일본과는 하토류원자력 협력 합의
 - 미국 10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 6개월래 최저. ADP 민간고용은 증가
 - EU, 핵심 원자재의 대외 의존도 축소할 방침. 독일 11월 GfK 소비자신뢰는 하락
 - 중국 공산당, 4중전회 차기 5개년 계획 전문 공개. 내수 확대 및 공급 개혁 강조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美中 무역협상 기대, 10월 FOMC 전망 등이 영향
 - 주가 상승[+0.2%], 달러화 약세[-0.1%], 금리 약보합[-0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AI 낙관론에 따른 관련주 강세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차익 매물 출회, 연준 FOMC 경계감 등으로 0.2%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10월 FOMC 앞두고 움직임 제한된 가운데 소폭 하락 마감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1%, 0.5%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금리인하 전망, 양적긴축 종료 가능성 등으로 약보합
독일은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인하 가능성 낮다는 평가 등으로 1bp 상승
- ※ 뉴욕 1M NDF 증가 1429.9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31.7원, 0.42% 하락). 한국 CDS 하락

		10/28일	10/27일	전일대비			10/28일	10/27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890.9	6,875.2	+0.23%	국채 금리 10y	미국	3.98%	3.98%	-0bp
	유럽	575.76	577.03	-0.22%		독일	2.62%	2.62%	+1bp
	중국	3,988.2	3,996.9	-0.22%		영국	4.40%	4.40%	-0bp
	일본	50,219	50,512	-0.58%	CDS 5y	한국	22bp	23bp	-1bp
	한국	4,010.4	4,042.8	-0.80%		중국	41bp	42bp	-1bp
	달러지수	98.73	98.78	-0.06%	위험 지표	EMBI+	-	280	-
유로화	1.1651	1.1645	+0.05%	VIX		16.42	15.79	+3.99%	
환율	엔화	152.11	152.88	+0.51%		WTI유	60.15	61.31	-1.89%
	위안화	7.0992	7.1084	+0.13%	원자재	구리	517.1	517.2	-0.01%
	원화	1,437.7	1,431.7	-0.42%		금	3,952.1	3,982.2	-0.7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트럼프, 중국과 원만한 무역협상 기대. 일본과는 희토류·원자력 협력 합의

-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는 매우 잘 진행될 것이며, 모두에게 훌륭한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고 부연
- 또한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중국이 펜타닐 제조에 쓰이는 화학물질 수출을 단속할 경우 미국이 對中 관세율을 최대 10%p 낮추는 방안 논의. 현재 미국은 펜타닐을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20%p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
- 양국이 이에 대한 합의에 성공하면, 무역 긴장은 다소 완화될 전망. 또한 중국産 수입품 관세는 하향 조정(55%→45%)되는데, 이는 중국이 여타 신흥국(인도産 및 브라질産 수입품 관세는 50%)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는 의미
-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 만나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및 희토류에 대한 협력에 합의. 구체적으로 일본은 차세대 원자로 및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 또한 양국은 핵심 광물 및 희토류 공급망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투자를 추진할 계획
- 이와 관련된 성명서는 구체적으로 중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내용이 결국 중국에 대한 대응을 주요 배경으로 삼고 있다고 평가
- 한편, 익명의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이 이번 주 AI(인공지능), 양자컴퓨팅, 6G 통신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고 언급. 이 외에 바이오 및 의약품 공급망 개선,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 촉진 등도 포함될 전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10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 6개월래 최저. ADP 민간고용은 증가

- 10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는 94.6을 기록, 전월(95.6) 대비 하락했으며 이는 4월 이후 최저. 이번 결과는 고용 및 물가에 대한 불안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
- 한편 ADP가 발표한 10/11일 기준 4주의 민간고용은 주당 평균 1.4만개 증가. 월별로 환산할 경우 약 5.5만개 늘어 9월(3.2만개 감소)과 비교 시 뚜렷한 반등세 시현. ADP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앞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2주 시차를 두고 4주 평균 고용 변화를 발표할 계획

■ Goldman Sachs, 신용시장에서 시스템 위험 신호는 부재. 향후 엔화 강세 예상

- Goldman Sachs의 데이빗 솔로몬 CEO는 현재 신용시장에서 시스템 위험을 알리는 신호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 한편, 카막샤 트리베디 글로벌 외환 최고담당자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엔화의 저평가 국면이 해소되고, 장기적으로 미국 달러화와 엔화의 통화 비율이 1:100이 될 수 있다고 언급
-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창립자 레이 달리오는 미국 기술기업 주가의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고 경고. 다만 이는 연준의 완화정책이 전환될 때 터질 것이라고 예상

■ EU, 핵심 원자재의 대외 의존도 축소할 방침. 독일 11월 GfK 소비자신뢰는 하락

- EU는 연말 전까지 '리소스EU(RESourceEU)'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 여기에는 희토류를 포함한 주요 원자재의 대외 의존도,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
- 한편, 독일 11월 GfK 소비자신뢰는 -24.1을 기록, 전월(-22.5) 대비 하락세 심화. 이번 결과는 향후 소득 전망의 악화 등이 반영. ECB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1년 후 인플레이션 기대는 2.7%로 전월(2.8%) 대비 하락

■ 중국 공산당, 4중전회 차기 5개년 계획 전문 공개. 내수 확대 및 공급 개혁 강조

- 공개된 전문에 따르면, 5개년 계획은 합리적 구간에서의 경제 성장 유지, 총요소 생산성의 안정적 제고, 주민 소비 확대를 통한 내수 성장 유도 등을 명시. 이는 경제 성장 목표를 합리적 수준에 맞추고 경제 구조를 내수 주도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 또한 민간경제 발전, 금융강국 건설 등도 언급

■ 일본 카타야마 재무상, 통화정책 관련 직접 언급 보도를 부인. 엔화 강세를 유도

- 카타야마 재무상은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통화정책 관련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발언. 이번 발언 이후 달러화 대비 약세를 나타내던 엔화는 강세로 전환. 최근 美日 재무장관 회의에서 베센트 장관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낮춘다고 언급하여 엔화 약세를 유발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0/29일 현지시각 기준)

- 10월 FOMC, 미국 9월 잠정주택판매, 무역수지, 도매재고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美中 정상회담, 법적 구속력 있는 무역합의는 기대난. 휴전에 그칠 전망 - The Economist**
(What the Trump-Xi meeting can and can't solve)
 - 한국에서 개최되는 APEC 기간 美中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 美中 무역갈등 해소 기대로 S&P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이와 관련된 낙관 전망이 제기.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양국 무역관계의 획기적 전환 가능성은 제한적
 - 첫째, 관세는 기한 연기 또는 징벌적 부과 철폐 등으로 일부 진전을 이룰 수 있으나 중국산 상품에 대한 20~30%의 실효 관세율은 유지될 전망. 둘째,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의 폐기 가능성은 낮으며, 시행 연기를 조건으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해제 등을 요구할 전망. 셋째, 러시아 및 대만과 관련한 양국의 확연한 입장은 무역협상 과정에서 장애물로 작용할 소지
- **美中 정상회담 임박,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 예상되나 일부 위험 요인 상존 - Reuters**
(As Trump-Xi trade talks near, investors turn to history as a guide)
 - 美中 양국은 정상회담에 앞서 협상 틀 마련에 합의했으며, 이에 글로벌 주가는 상당한 상승세 시현. 시장에서는 양국 정상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이에 따른 긴장 완화 전망, 금리인하 및 유동성 확대 가능성 등으로 주가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관측(Union Bancaire Privée)
 - 하지만, 빅테크(MS, 애플, 아마존 등) 3/4분기 실적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 만약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이는 美中 정상회담의 긍정적 결과를 상쇄하거나 부정적 요인을 증폭시킬 소지. 아울러 예비 합의 이후 협상 결렬 가능성도 우려 요인(Macquarie)
- **연준의 장기 금리 영향력 약화, 글로벌 금융시장에 오히려 긍정적 - Financial Times**
(The waning influence of the Federal Reserve)
 - 1990년 이후 G7의 차입 비용(장기 금리)은 일본,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대체로 동기화가 진행. 이러한 가운데 고령화, 아시아 과잉 저축 뿐 아니라 연준의 정책이 미국 장기금리 변동의 주요 원인(Harvard)이고,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Riksbank)
 - 그러나, 연준의 영향력은 '22년 이후 급감. 연준은 낮은 수준의 장기금리를 선호하나, 투자자들은 높은 수준의 금리를 요구(ex. 기간 프리미엄 상승). 이에 여타국 중앙은행도 연준 영향에서 벗어나 세계 및 국내 동향에 대한 자체적인 견해와 해결책 마련이 가능. 글로벌 금융시장의 연준 의존도 축소는 긍정적 현상으로 판단

■ 연준의 금리인하, 경제 전망 불확실성 고려 시 12월 이후 중단이 바람직 - 블룸버그

(The Fed Should Pause in Cutting Interest Rates)

- 시장에서는 연준이 10월 FOMC 뿐 아니라 12월 FOMC에서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향후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 추가 금리인하 근거가 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현재 고용 둔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8월 실업률(4.3%)의 경우 연준의 최대고용(maximum employment) 책무가 크게 훼손되지 않았음을 의미
- 또한 기업의 관세 부담 소비자 전가는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지만,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심화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 게다가 섣달의 데이터 수집에 차질이 발생. 이에 경기지표 발표가 지연되거나 취소되어 평소와 같은 경제상황 파악이 매우 어려운 상황. 한편,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연준의 금리인하 기조는 위험 균형(balance of risks) 차원에서 오히려 정당화될 소지

■ 연준, 유동성 우려 등으로 10월 FOMC에서 양적긴축(QT) 종료 예상 - Reuters

(Market liquidity concerns cloud end of Fed's balance sheet drawdown)

■ 미국 중단기 국채 입찰 금리, 수요 부족에도 금리인하 가능성을 반영 - 블룸버그

(Treasures Weather Weak Demand for Seven-Year Notes, Await Fed)

■ 미국 트럼프의 관세정책,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국 친화적으로 만들 소지 - Financial Times

(Will Trump push south-east Asia towards China?)

■ 미국 빅테크, 대규모 AI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는 수익성에 부정적 - Financial Times

(Big tech's big gam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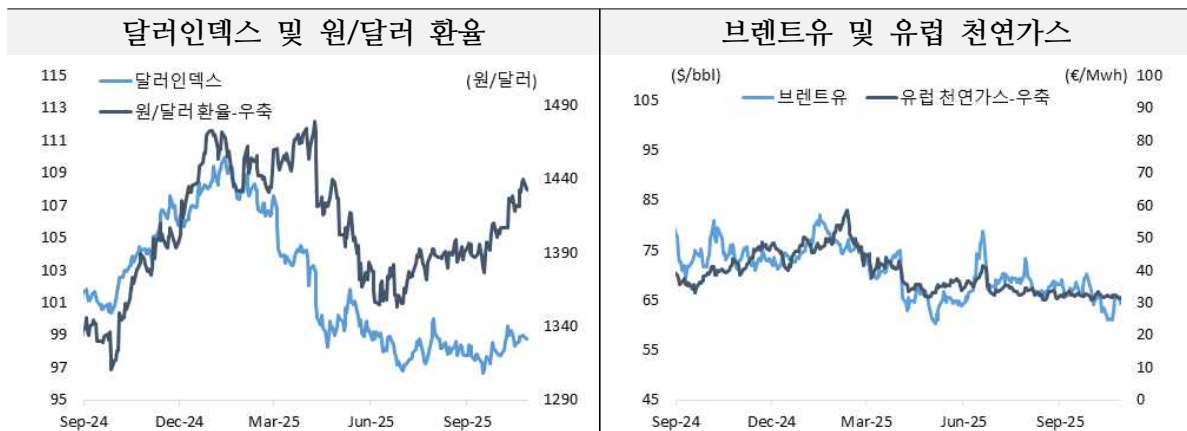
■ 영국, AI·스타트업 경제 구축 등 성장을 위한 의미 있는 계획이 요구 - Financial Times

(Reeves must get whatever growth she can)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